# 성불하기 어려워

## 큰스님

(직지사 강주)



◇강원으로 출강하기전 그날의 강의내용을 점검하는 의룡스님.




◇직지사 벽안당 편액은 남전스님의 친필이다.

혜 광명이 눈에 어리어 부처님이 샛별의 눈빛으로 정각을 이루셨듯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스님은 고봉화상의 이 게송만 잘 이해해도 참선을 하는 방법과 그 성취의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기에 나름대로의 해석법을 강조하고 있다.

### 의룡스님은?

경기도 안성에서 1936년에 태어나 여섯 살 때 용꿈을 꾸고 스스로 용주사를 찾아가 출가 했다. 12세인 1948년에 용주사에서 만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2년 님에게 강맥을 전해 받았다. 이후 서울 불광동에 삼매정수선원을 창건해 35년간 홀로 정진 했다. 찾아오는 신도들에게는 여래선수행과 경전을 가르쳤다. 6년 전 은사 서운 스님의 다비식이 김천 직지사에서 엄수 되었을 때 직지사에서 녹원스

### 삼매정수선원 창건, 직지사 강원서 학인 지도

뒤인 1750년에 일해 스님을 은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용주사 월정사 해인사 등에서 관응, 탄허, 명봉스님에게 경전을 배웠고 명봉스 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직지사 강원 강주를 맡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무념무상 경지 도달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선이란 삼매에 드는 길 아닙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기 위해 호흡을 조절하고 법륜을 굴 합니다. 법륜은 설법이 아니 자신에게 내재된 불성(진리)입 다. 그것을 순일하게 굴리는 수 이 여래선입니다. 몸 안의 물 과 불기운을 조화 시키는 것. 기운은 위로 올리고 불기운은 로 내리면서 법륜을 굴리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스 로 선을 닦고 선행을 닦아 공덕 쌓는 것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

님은 무량겁을 두고 점수(漸修)를 공덕이 원만하게 익으면 몰록 깨치 돈오(頓悟)의 경지에 이를 수 있으며 서도 늘 선정 삼매에 들어 진리를 보일 수가 있다는 점수돈오를 가 로 삼고 있는 것이다.

님이 입어나 벽안당 큰 방 서가(書架)에서 한 권의 책을 찾아 펼쳐 보였다. 〈선요(禪要)〉. 고봉대혜(高峰大慧 1238-1295, 중국선사) 화상의 금쪽 같은 가르침이 간결하게 수록된 책으로 강원의 필수 과목이기도 하다. 고봉화상의 게송 하나를 읽어 내리는데 잘 알려진 것이었다.

해저니우합월주(海底泥牛啣月走)
암전석호포아안(巖前石虎抱兒眼)
철사찬입금강안(鐵蛇鑽入金剛眼)
곤륜기상로자견(崑崙騎象鷺鷥牽)

이 게송은 일반적으로 "바다 밑 진흙소는 달을 머금고 달아나고 바위 앞 돌 호랑이는 새끼를 안고 졸고 있다. 철 뱀은 금강신장의 눈을 뚫고 들어오고 곤륜산을 탄 코끼리를 백로가 끌고 간다"는 정도로 해석 하고 있다. 격외 경지를 상징하는 선시라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룡 스님은 다르다. "바다 밑의 진흙소는 달을 머금으려고 달려가거늘 바위 굴 앞의 돌 호랑이는 새끼를 안고 졸도다. 금 뱀이 금강안을 뚫고 들어오고 곤륜이 탄 코끼리를 갈매기(새)가 끄는 도다"라 해석한다. 그리고 이 게송 이야말로 여래선의 수행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날날의 시어들이 갖는 상징을 풀이하며 설명했다.

바다 밑은 단전을 의미하고 진흙소는 물의 기운을 말한다. 달은 높은 곳이니 단전의 물기운을 위로 끌어 올리는 호흡법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행의 돌 호랑이는 우리 인간의 마음자리이고 새끼는 바로 그 마음자리 속의 불성이다. 즉 돌 호랑이가 새끼를 안고 존다는 것은 부처가 아기부처를 안고 조는 것으로 우리가 마음자리에 불성을 품고 있음과 그 불성이 나날이 자

> **성급하게 부처되겠다 생각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라는 것(아기가 자라듯)을 뜻한다. 돌이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부동심(不動心)인 것이다. 쇠로 된 뱀은 광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광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혜의 광명을 본다는 것이다. 마지막 행의 곤륜은 도의 경지이며 이것을 태운 코끼리는 수행자이다. 도를 태운 수행자의 정진은 코끼리를 새가 끌고 가듯이 느리게 마련이니 수행은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래의 물 기운은 위로 올리고 위의 불기운은 아래로 내리는 호흡법으로 자기 내부의 법륜을 굴리는 수행을 하면 그 속의 불성자리가 아이 자라듯 하여 마침내 지

의룡스님은 남들 앞에 나서거나 큰 절의 주지를 하려고 애써 본 적이 없다. 황악산 직지사 대가람의 가장 뒤편에 자리한 벽안당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정진 하는 것이 스님의 가풍이다. 그러나 한 때 경전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열정을 보이기도 했다. 용주사에서 관응 스님에게 〈금강경〉을 배웠고 오대산으로 달려가 탄허 스님에게 〈원각경〉을 배웠다. 나머지 이력은 전강은사인 명봉스님에게서 마쳤는데 그 후 스님은 서울의 불광동에 작은 암자를 마련하고 35년이나 홀로 지냈다. 홀로 정진할 토굴의 자리를 불광동으로 정한 것은 순전히 동네 이름 때문. 그래서 암자를 지을 때 상량문에 '부처님 광명이 이 땅에서 나와 삼천대천세계를 비추게 하리라(佛之光明 出於此地 普照 於 三千大天世界)' 라는 구절을 손수 지어 넣기도 했다.

울타리도 치지 않은 작은 암자에서 홀로 지내던 어느 날 스님은 선정 삼매에 빠졌었다. 사흘 후에 선정에서 깨어나 오묘한 마음자리를 드러낼 시 한수를 지었다.

홀좌중도삼매지(忽坐中道三摩地)
당처열반시화장(當處涅槃是華藏)
월인천강강강월(月印千江江江月)
불현만상상상불(佛現萬相相相佛)

홀연히 중도 삼매에 앉으니
그곳이 열반이고 여기가 화장세계라.
달이 천강에 도장을 찍어 강마다 달이요
부처가 만 가지로 나투시니 모양마다 부처로다.

이 시를 보고 건당은사인 서운 스님은 "자네가 오도송을 지었네"라며 칭찬했고 전강은사인 명봉 스님은 "불성 자리를 보았다"고 격려를 했다.

임연태 기자 ytim@buddhapia.com



##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명성스님

(전호에서 계속)

스님은 절대 사람을 내치지 않는다. 학인시절은 스님노릇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보니 문제가 가끔 발생한다. 당시 우리 반에 대중을 소란스럽게 하는 스님이 있었다. '학칙에 의거하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면 모두가 편안한 강원생활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 스님을 내보내야 한다'고 여론이 들끓었다. 마침내 반 공사를 하였고, 반을 대표하는 학인들이 학장스님을 찾아뵈었다. 이 때 스님께서는 "강원교육은 스님 생활의 기본을 익히는 곳이고 공부하는 도량인데, 이곳에서 나가면 어디서 그 학인이 구제될 수 있겠느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며 수행자로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간곡히 타이르셨다. 중생의 삶에 어찌 옳고 그른 것이 있으랴. 깨닫지 못한 자의 삶은 세월이 흐른 뒤에 정확히 시비를 판단할 수 있다. 학장스님의 말씀이 옳았다.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던가.

내가 운문사에 살 때도, 학인들이 방에서 소란



스럽게 떠들거나 웃어도 스님께서는 "왜 이렇게 떠드느냐? 조용히 하라"고 걱정하시는 법이 없었다. 근래 운문사를 졸업한 후배 말에 의하면 스님께서 머무시던 방이 학인들과 가까이 있는데 여름에도 문을 닫고 사신다고 했다. 즉 "학인들이 쉴 때는 자유롭게 쉬어야지 당신 때문에 학인들이 불편해서는 안된다"는 배려 때문이다.

선사상에서는 '사위의(四威儀;行住坐臥)가 도량이요, 3業이 불사' 라고 한다. 수행자는 주위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도량을 키우는데 관심을 두라는 것이지만 형이학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여건도 갖추어져야 수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국의 큰 절들이 대부분 비구도량인지라 비구니스님들의 선방은 콩나물 시루 같은 공간인 반면, 운문도량은 어느 총림 못지않은 비구니도량이다. 운문사엔 학인 250명에, 재가자 20~30명을 합치면 근 280명이 상주한다. 그 많은 대중이 살아가는데도 넉넉한 도량으로 불사가 이루어졌으며 한국불교를 짊어진 비구니스님들이 공부하는데 빈틈없는 체제를 갖춘 승가대학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학장스님의 공이다.

제자들이 어긋나는 발언을 하거나 대중공사에서 의견이 맞지 않을 경우가 더러 있다. 이때마다 스님께서는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며 그 책임을 당신에게 돌리신다. 학인시절에는 이 어른께서 대중을 조용하게 무마시키려는 무기(?)인줄 알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많은 대중을 이끄는 힘, 즉 리더십인 것을 알겠다.

명성스님에게는 따뜻한 인간적인 향기가 풍긴다. 제자가 수술을 하거나 좋지 않은 일을 겪으면 개인적으로 꼭 관심을 표하신다. 강원을 졸업한 대학생 제자들을 우연히 만나거나 혹 제자들이 찾아가면, 당신 상좌들이나 신도들이 주신 쌈지돈을 내놓곤 하신다. 스님께서는 표현은 잘 하지 않으시지만 정이 많으시다. 1년에 한 반씩 졸업하는 학인들을 떠나보낼 때도, 스님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며 늘 가슴아파 하셨다.

얼마 전 열린 '한국의 선서화전' 에 작품이 전시될 만큼 스님의 붓글씨는 명필이다. 옛날에는 스님께서 기거하시던 방이 도서관(회성당)옆이었다. 그 도서관은 책도 읽고, 붓글씨를 쓰는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어느 날 귀한 손님이 찾아왔다. 나는 점심시간에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스님께서 손님에게 글을 써 주시려고 하셨는지 먹을 갈라고 하셨다. 먹을 갈다가 볼일이 있어

### 제자들끼리 의견 엇갈리면 "내가 잘못 가르쳐 이런일이…"

나갔다가 잠시 후 돌아와 보니, 아뿔사! 벼루와 먹이 딱 붙어버린 것이 아닌가. 떨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아 끙끙거리는데, 스님께서 마침 들어오셨다. 꾸지람을 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도 죽고 사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도리어 나의 불안한 심기를 어루만져 주셨다.

이후 스님의 이 말씀은 나의 생활터전 한 자락에 오랜동안 자리를 잡았다. 수행자로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며 어떤 것이 가치있는 판단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형성시킨 계기가 되었다.

스님께서는 유식분야의 권위자다. 그러나 스님은 실줄과 날줄의 엮임처럼 완벽한 불교학의 패러다임을 갖추고 계신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어쩌다가 모르는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는 스님께서 웃으시며 "모른다"는 솔직한 답변을 하신다.

내가 화엄반에 있을 때의 일이다. 절 집으로는 먼 사숙뻘되는 어른이시라, 마침 내가 출가한 은사스님 절에 행사가 있어, 스님을 모시고 서울을 가게 되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가는 4시간 내내 기차 안에서 스님께서는 책을 보셨다. 학자다운 이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막힘이 없으신 것이다. 그렇듯 스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잠시도 경학을 손에 놓지 않는 열정을 갖고 계시다.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 한국불교의 도약을 위한 원력과 실천 |

# "제3기 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불교중흥을 위한 시대적 요구는 불교지도자의 양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에서는 제 3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이 과정은 불교최고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강의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불기2546년 6월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설 부산불교최고지도자아카데미 학장 류 진 수

**수강안내**

| | |
|---|---|
| 입학자격 | · 각 사암 주지스님이 추천한 자<br>·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br>· 불교신행단체 임원 및 임원을 역임한 자<br>· 불교대학 포교사 과정을 수료한 자 |
| 교육기간 | 2002년 6월 28일 ~ 2002년 12월 13일 (6개월) |
| 교육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8시 30분 |
| 교육장소 | 부산불교회관 5층 강당 |
| 원서접수 | 2002년 6월 26일까지 |
| 모집인원 | 80명 |
|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부산불교신도회 사무국(051-853-2021, 464-2020) |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 합격자 통지 | 2002년 6월 27일(수) |
| 입학식 | 2002년 6월 28일(금) 오후 7시 |
| 등록금 | 35만원(입학금 50,000원 수업료 300,000원) |
| 등록금 납부 | 2002년 6월 28일(금)까지 |
| 하계방학 | 2002년 7월 26일 ~ 8월 2일(2주간), 9월 26일(추석) |

**주요강사진**

| | | | |
|---|---|---|---|
| 고 산 스님 | 해인정사 조실 | 강동균 | 동아대 교수 |
| 지 안 스님 | 통도사 전 강주 | 최봉수 | 동국대 교수 |
| 도 업 스님 | 동국대 교수 | 이 만 | 동국대 교수 |
| 예 능 스님 | 해인사 율원장 | 박인성 | 동국대 교수 |
| 지 현 스님 | 송광사 율원장 | 권기종 | 동국대 교수 |
| 안 탑 스님 | 문사수 외주 | 김상현 | 동국대 교수 |
| 홍 선 스님 | 중앙승가대 교수 | 박광서 | 서강대 교수 |
| 성 본 스님 | 동국대 교수 | 채상식 | 부산대 교수 |
| 월 호 스님 | 황계사, 국사암 주지 | 정병조 | 동국대 교수 |

▶특강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

**교과내용**

| | | | |
|---|---|---|---|
| 불교사상론 | 반야사상<br>천태사상<br>정토사상<br>화엄사상<br>법화사상<br>중관론<br>유식론 | 특 강 | 불교지도자의 시대적 사명<br>바람직한 중교교육방향<br>법과 중교와의 관계 |
| 지도자론 | 불교지도자의 리더십<br>재가불교의 역할과 방향<br>불교지도자의 자세와 조직관리 | | |
| 포교론 | 불교사상의 재인식<br>현대불교의 방향<br>불교와 사회참여<br>비교 중교학<br>불교와 과학, 불교의 보편성 | | |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 2동 157-1 전화 051)853-2021, 2020 팩스 051)853-2036